

'잘 먹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소시지 반찬 좀 싸주세요.'  
 서울 육수동 육정중학교 양호실에는 매일 아침 도시락 7개가 가지런히 놓여있다. 셋째, 넷째 수업 시간이 끝날 즈음 7명의 학생들이 하나 둘씩 소리가 없이 도시락을 가져간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빈 도시락들이 다시 놓여있다. 어떤 도시락은 깨끗이 씻겨져 있고, 어떤 도시락 안에는 아기

###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자기관 내용의 폭자가 들어있다.  
 하지만 예쁜 가방에 밥통과 반찬통, 김치통까지 든 이 도시락을 싸주는 엄마(?)가 누군지 학생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의 실직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도시락을 받아가는 아이들도, 도시락을 보시하는 사람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몰래 도시락'을 싸주는 '엄마'는 바로 학교 근처 육수동향사회복지관(관장 상덕스



님의 재가복지과장으로 근무하는 바구니 효인스님. 스님이 결식 학생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기 시작한 때는 지난 9월, 결식 어린이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방학동안에는 무료급식소로 점심 때 아이들을 불렀다. 주변 5개 초등학교 교사들을 통해 소개받은 학생은 1백여명, 하지만 단 2명만 찾아왔다.  
 "항상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몹시 꺼려했어요. 차라리 굶는 게 낫다는 거예요."  
 고민 끝에 생각한 방법이 몰래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저마다 다른 도시락가방을 준비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12일부터는 육수동 관내의 5개 중·고등학교로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락이 35개로 늘어나 사회복지사 2명과 자원봉사자 6명의 도움을 받고 있다. (02)282-1100 김재경 기자(jkim@buddhopia.com)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기준거래 없이도 빠르고 공정하게 대출해 드립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화 051)633-9120~3  
**불교신협** 부산동구 범일2동 834-20

## '3선공방' 심상찬은 행보

징계스님 28명 조계종 총무원 무단 점거  
 월하스님 중정교사 "3선 중헌종법 위배"  
 월주스님 "해종행위자 엄중책임 물을 것"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험로(險路)를 걷고 있다. 10월 24일 오후 조계종으로 부터 징계를 당한 스님들 28명이 총무원 청사를 점거해 '총무원장 3선문제'는 중단 화합차원에서 절대 부당함과 '사법복권'을 내용으로 하는 '중정교사' 이행을 주장하다 전원 연행. 27일 오후 석방됐다. 이와관련 교계에서는 이들이 발표된 '중정교사'에 대한 진위 여부가 논란되며 혼란 국면이 전개되기도 했다.  
 27일 월하스님은 정우스님(구룡사주지)이 대독한 '중정교사'를 통해 "총무원장 3선은 중헌종법에 위배되는 바 절대 부당하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3선 공방'이 '총무원장 점거' '중정교사' 등으로 확산됐다.



10월 29일 조계종 제2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전국교구본사에서 실시됐다. 사진은 직할교구 스님들의 투표장면.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9일 담화문을 발표, 총무원 점거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거 과정에서 일탈하여 집단적인 폭력과 대중동원으로 총무원장을 마비시키고 중정(中政)을 중단해 하려는 의도"라 지적하고 "총무원은 이러한 의도가 관철될 수 없도록 사안에 차단할 것이며 모든 해종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3선 공방'의 행배가 이번 선거의 가장 중대한 방항타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연대회의는 11월 4일과 11일 대중법회를 연다는 방침이고 월하스님의 '중정교사' 발표 후부터 일로 회의 소집도 거론되고 있다.  
 원로회의가 스집될 경우 '3선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후보진영도 "이번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월하, 설초, 지선스님은 9월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월주스님의 3선 지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임연태 기자 (ytlm@buddhopia.com)

### 구족계 수계자격 강화

조계종 계단위, 갈마방침 공개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단일계단 수계산림의 수계 자격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단일계단 유나 월주스님은 최근 수계산림의 갈마방침을 공개, 구족계 수계 자격 강화 방침을 밝혔다. 방침에 따르면 계단위는 △동학인거증 위조자 △대교인이 없는 강원 졸업(예정)자, △승납 4명에 4명 하인거를 마치지 않은자나 강원이나 승가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자 △기본승의와 오후불식을 이겨내지 못하고 휴업을 하거나 예식, 초발심자경문, 사미계를, 식차이나계법 등을 숙지하지 못한다 △수계 승납 연한은 됐지만 기본교육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자 등에 대해서는 수계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임연태 기자

## 조계종 종회의원 78명 선출

직선 48명-직능 20·비구니 10명

해인사는 투표 못해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추후 일정을 조정해 실시된다.  
 9월 28일 오후1시부터 실시된 직능직종중앙종회의원 선출위원회에서 10개본사 20명의 직능직 의원과 10명의 비구니 대표가 선출됐다. 중앙선관위는 11월 6일 당선된 중앙종회의원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5면>  
 한편 대각회는 장관계정 각서를 제출치 않아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임연태 기자

### 불교문화 체험기행

11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속리산 법주사,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 등을 찾아가입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목조 5층탑인 팔상전, 쌍사자석등, 세계최대 규모의 청동미륵대불 등으로 널리 알려진 법주사를 참배합니다. 또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제조한 흥덕사가 있었던 곳으로 인쇄술의 발달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11월 "금속활자를 통해 본 선조들의 슬기" 법주사·흥덕사지(고인쇄박물관)

출발: 11월15일(일) 아침7시 조계사 앞  
 회비: 3만(점심 제공, 박물관 입장료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해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222-04-221460(성경호)  
 \* 11월로 불교문화 체험기행이 막을 내리니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해초여행사 협찬: 일양약품

### 제4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에서 정경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제4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품어두기에는 너무나 뜻깊은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투명한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5일  
 △주제: 생활 속 수행 신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백자 원고지 30매 안함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담당자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9년 신년호  
 △시상내용  
 \*총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현대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공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조계종 종회의원 당선자 명단	5면
"10만배 기도정진합시다"	23면
개신교 지도층 '혜불반성'	3면

## 教 示

오늘의 宗團現況이 甚히 念慮되는바 이에 教示를 내려 本人의 뜻을 밝히고져 하노라.

- 一. 總務院長 三選은 宗憲宗法에 違背되는바 절대 不當하다.
- 一. 宗團和合과 發展을 위해 宗憲宗法을 전향적으로 改定하기 바라노라.
- 一. 중징계자들을 선별하여 特別赦免 할 수 있는 法을 마련하라.
- 一. 부처님 根本戒律에 위배된 자(具足戒未受持者)가 宗務를 遂行하는 것을 是正하고 청정승가를 이룩하라.
- 一. 모든 宗徒들은 佛敎淨化理念을 되살려 제 2淨化 佛事를 하는 마음으로 모두 同參해서 宗團을 바로잡기 바라다.

나의 뜻을 元老와 重鎮, 本寺住持, 宗會議員들과 모든 宗徒들에게 밝히는 바이니 奉行하기 바라노라.

佛紀 2542年 10月 26日  
 大韓佛敎曹溪宗  
 宗正尹月下